

5. 발정이 잘 오지 않거나 임신이 되지 않는 번식장애의 원인은?

한우의 번식장애 발생률은 11.9~16.2%로서 비교적 높은 편인데 증상으로는 무발정을 나타내는 경우가 약 70%를 차지한다. 번식장애의 유형은 난소 질환이 70%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.

번식장애의 원인으로는 생식기의 선천적 또는 후천적인 해부학적 이상, 호르몬 분비 이상, 사양관리의 불량, 미생물 감염, 부적절한 수정 및 번식검사 기술 등 여러 요인이 있으나 번식장애의 60~70%가 사양관리 불량에서 비롯된다. 예를 들면 운동 부족과 농후사료의 지나친 급여로 과비육된 소는 난포발육장애, 난소낭종 등의 번식장애에 걸리기 쉽고 발정의 미발견이나 수정 및 분만 시의 자궁감염 등도 주요한 원인이 된다.

(한우연구소 / 033-330-0625)